



교실에 쓰레기통 없는 학교

김건수 교장선생님

“성숙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리 배출하는 당
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구조물 밑에 버려진 쓰
레기가 있었다. 100만원의 손해를 무릅쓰고 누가 쓰레기를
버린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믿음 아래 그렇게 했을
것이다.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것을 우리는 익명성이라 부른다. 누가 보지 않아도
본능을 억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아래의 글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고려의 공민왕 때 이공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해 원
나라에 보내는 임금님의 편지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되
었다. 일행이 압록강 근처에 다다랐을 때, 타고 가던 말들
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대감님, 말이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말들에게
무얼 좀 먹여야겠는데 인가도 없고, 마침 저 들판에 추수한
조들이 쌓여있네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하인이 조밭으로 뛰어가려 하자 이공수가 말했다.

“자, 내가 조밭 입자에게 사유를 적은 편지를 써 줄 테니
돈 자루에서 조 한 단 값을 꺼내어 이 종이에 싸서 남가리
에 찢어놓고 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이공수는 곧 벼루와 먹과 종이를 땅바닥에 꺼
내놓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하인이 말했다.

“대감님, 그럴 일이 됩니까? 다른 마소를 모는 사람이 지
나가다가 틀림없이 가축에게 조를 먹일 것이고, 그러면 그
엽전을 그냥 두겠습니까? ‘웬 떡이냐?’ 하며 가져가겠지요.
차라리 그냥 갖다 먹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공수가 대답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그렇다고 남의 소중한 곡식을 그
냥 축낸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내 마음도 편하지 못할 것
이다. 내가 한 일이 어떻게 전달될지 나중 일은 걱정할 필
요가 없다. 누구나 내가 할 바 도리만 지키면 된다. 흔히 남
의 핑계를 대며 자기의 행실을 바로 하지 않는 일이 있는
데, 그리되면 어찌 세상이 바로잡히겠느냐?”

아침 출근길에 교정을 들어서며 깨끗한 환경을 보면 기분
이 상쾌한데, 이곳저곳에 휴지나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웬지 쓸쓸한 느낌이 든다. 우리 학교는 교실에 쓰레기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이나 복도에 버려진 휴지나 쓰레기
가 없다.

이는 동산고 학생들이 시민의식, 윤리의식이 뛰어나며 익
명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이다. 지금같이 모든 동산인
들이 깨끗한 환경 만드는 일에 동참하며 명문(名門) 동산고
의 명성을 이어가길 기원해본다. 翻

